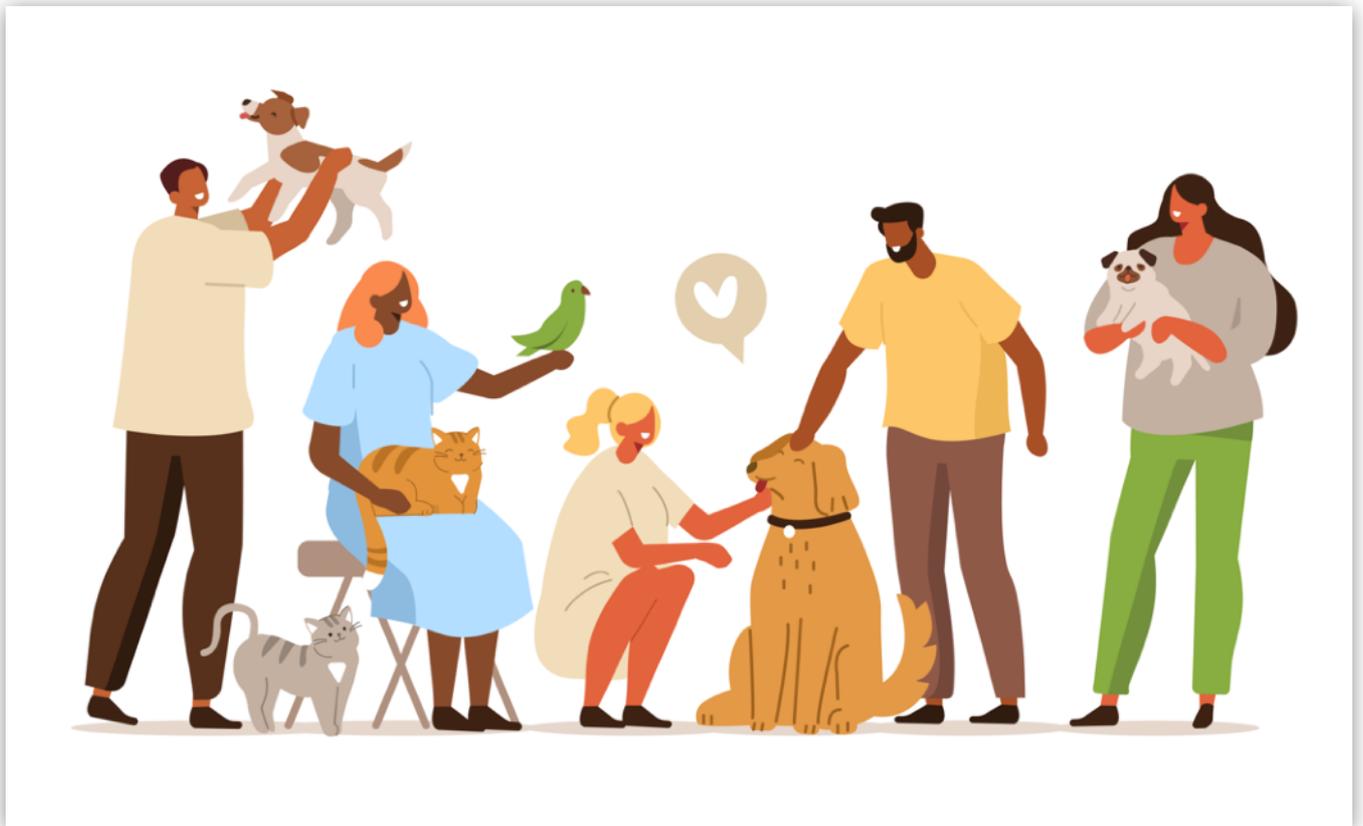


주요 내용

1. [반려동물 실태와 인식]
반려동물 입양, 코로나 시기에 급증!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한국인의 국회의원 선택 기준
 - 2) 응급실 자해·자살 시도자 실태
 - 3) 폐지 수집 노인 실태



반려동물 입양, 코로나 시기에 급증!

과거에는 사람의 즐거움, 교감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을 일컫는 말인 ‘애완’이라는 말이 익숙했으나, 현재는 많은 이들이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반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은 사람들의 소유물보다는 반려자(친구) 혹은 가족으로서 대우받는 추세이다.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존중하겠다는 사회적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으로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크게 확대되고 있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2023.8.)을 발표하는 등 국가전략 산업으로의 육성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한 4대 주력사업은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인데 여기서 ‘펫’만 제외하면 사람에게 적용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정도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최근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 국민 4명 중 1명(24%)이 반려인이며, 반려가구 대부분(82%)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로 말하자면 교인 4명 중 1명은 반려인이고, 그들 중 대부분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반려동물 입양은 특히 코로나시기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가 이러한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반려동물에 관한 목회적/신학적 이슈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번 넘버즈 주제를 ‘반려동물’로 정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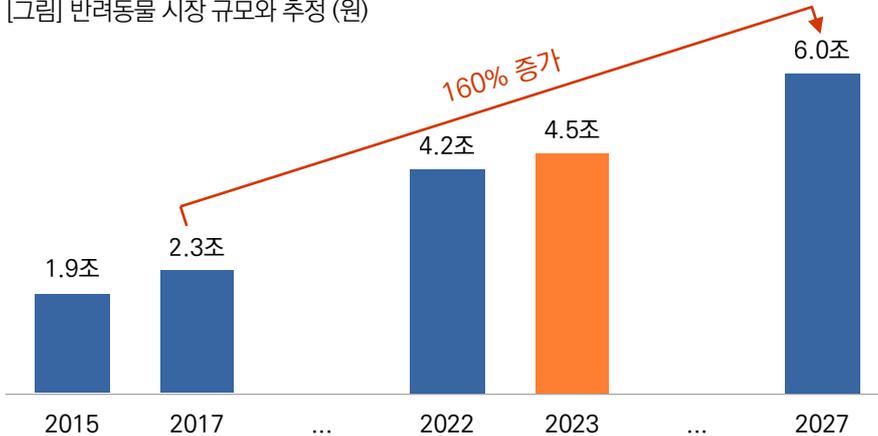
01

[반려동물 시장과 현황]

반려동물 시장, 2017년 2.3조 → 10년간 160% 성장 예상!

- ▶ 한국의 반려동물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지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 연관산업, 즉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는 2015년 1.9조 원에서 2023년 4.5조 원, 2027년에는 6.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반려동물 시장 규모와 추정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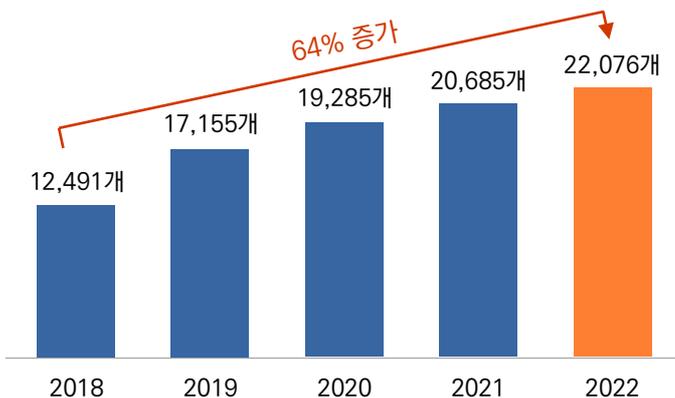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동물 연관 산업 확대, 문화·제도 뒷받침되어야' 보도자료(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2018.03.06.

◎ 반려동물 관련 업체 수, 4년 사이 64% 증가!

- ▶ 우리나라 반려동물 관련 업체 수는 2018년 약 1.2만 개에서 2020년 1.9만 개, 이 이후로도 지속해서 늘어 2022년 약 2.2만 개로 4년 사이 6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반려동물 관련 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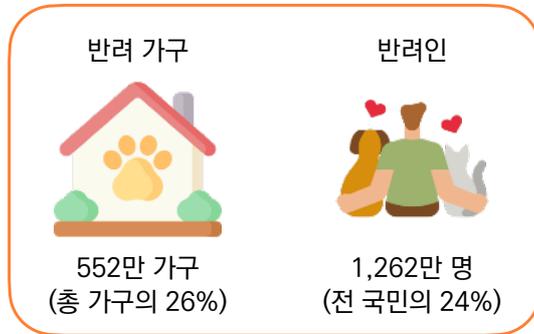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3.08.13.

**미용, 판매, 위탁관리, 생산, 운송, 수입, 전시, 장묘 관련업

◎ 우리 국민 4명 중 1명(24%)은 반려인!

- ▶ 우리나라에서 개, 고양이, 물고기, 거북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 가구'와 '반려인' 현황을 살펴본다. 2022년 기준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였다. 반려인은 1,262만 명으로 2022년 총인구 5,169만 명 기준 24%에 해당했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인인 셈이다.

[그림] 반려 가구 현황 (2022)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2023.06.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전국 20~69세 남녀 2,000명 설문 조사 결과 활용하여 추정, 모바일조사, 2023.02.15.~0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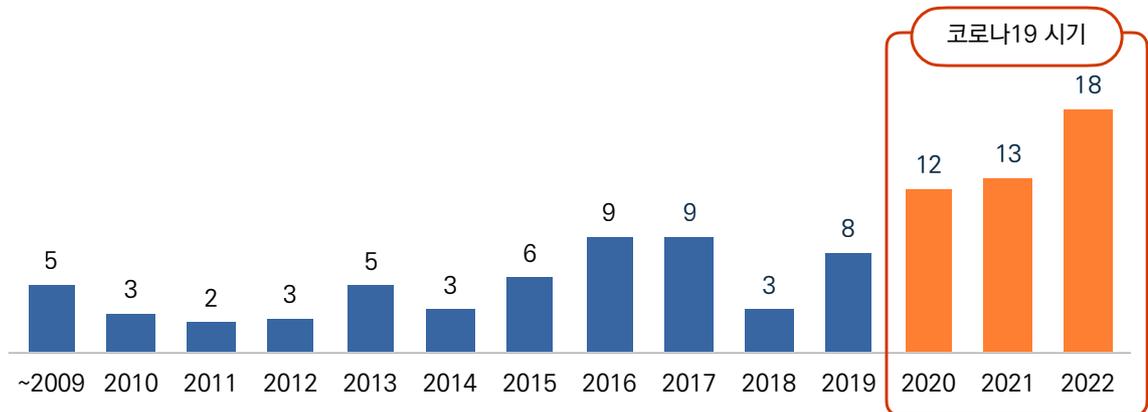
02

[반려동물 입양]

반려동물 입양, 코로나 시기에 급증!

- ▶ 가장 최근 반려동물을 입양한 시기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는 각 연도마다 10%를 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2022년에는 10%대 이상으로 반려동물 입양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가장 최근 반려동물 입양 시기 (%)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2023.06. (반려동물 양육 중인 전국 20~69세 1,000명, 모바일 조사, 2023.04.28.~05.0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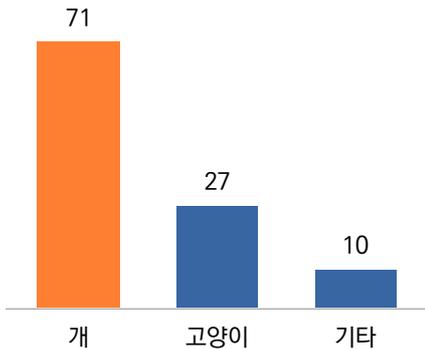
[반려동물 양육]

반려 가구 10가구 중 7가구, 반려견 키워

- ▶ 양육 반려동물로는 2022년 기준 '개(71%)'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고양이(27%)', '기타(10%)' 순이었다. 반려 가구 10가구 중 7가구는 반려견을 기른다는 얘기이다.
- ▶ 반려 가구의 반려동물 평균 개체수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반려견 수와 반려묘 수를 추산하면 개는 473만 마리, 고양이는 239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양육 반려동물 (반려 가구, 2022, 중복응답, %)

[그림] 반려동물 개체 수 (2022)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2023.06. (반려동물 양육 중인 전국 20~69세 1,000명, 모바일 조사, 2023.04.28.~05.03.)

◎ 반려동물 1마리 1년 키우는 데 평균 219만 원!

- ▶ 반려동물 입양부터 장례까지의 생애 비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반려동물 입양 시 드는 분양비는 평균 28만 원이었고, 건강관리/치료비를 제외한 월평균 양육비는 15만 원(연간 180만 원)으로 조사됐다. 또, 연간 치료비는 39만 원, 장례비는 평균 38만 원이었다.
- ▶ 1년 양육비는 반려동물 1마리당 월 양육비와 치료비만으로 219만 원 정도 된다.

[그림] 반려동물 관련 평균 지출 비용 (반려인,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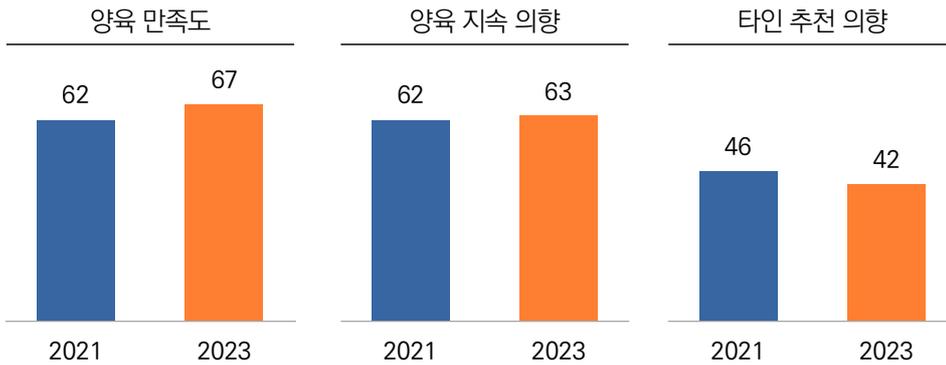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2023.06. (반려동물 양육 중인 전국 20~69세 1,000명, 모바일 조사, 2023.04.28.~05.03.)

**가구 기준

◎ 반려인, 반려동물 양육 만족하지만 타인 추천 의향은 떨어져

- ▶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 '양육 지속 의향', '타인 추천 의향'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양육 만족도'에서는 67%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2021년보다 다소 상승했으며, 63%는 '계속 기르겠다'고 양육 지속 의향을 보였다.
- ▶ 반면 반려동물을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의 경우 42%만 '추천하겠다'고 응답해 양육 만족도 대비 큰 온도 차를 보였다.

[그림] 반려동물 양육 평가 (반려인, 7점 척도 중 6~7점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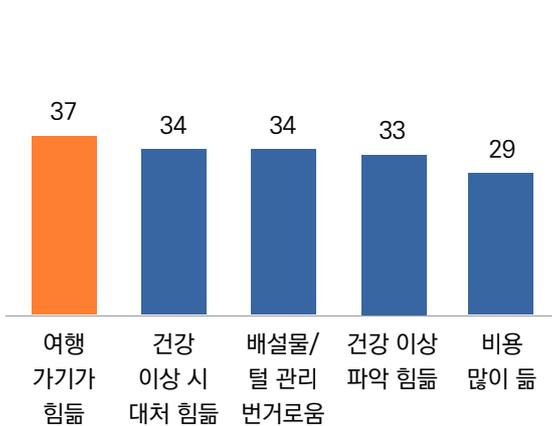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2023.06. (반려동물 양육 중인 전국 20~69세 1,000명, 모바일 조사, 2023.04.28.~05.03.)

**매우 만족 7점, 보통 4점, 매우 불만족 1점 등 1~7점 사이로 응답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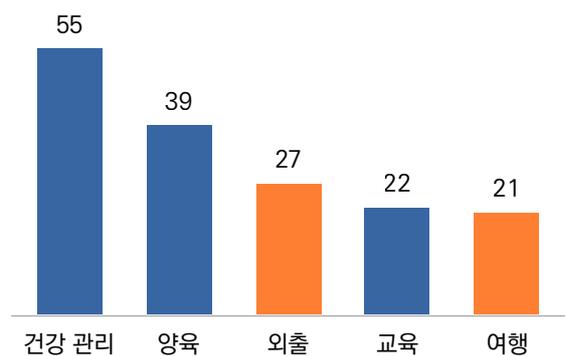
◎ 반려동물 양육 가장 어려운 점, '여행'!

- ▶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관심사는 무엇일까? 애로사항으로는 '여행'과 '건강'이, 관심사로는 '건강 관리'가 높게 나타났다.
- ▶ 특히 여행이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여행시 반려 동물을 데리고 가기도 어렵고, 집에 놓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반려 가구의 고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반려동물 양육 애로사항 (반려인, 1+2+3순위, 상위 5위, %)



[그림] 반려동물 양육 관심사 (반려인, 1+2+3순위,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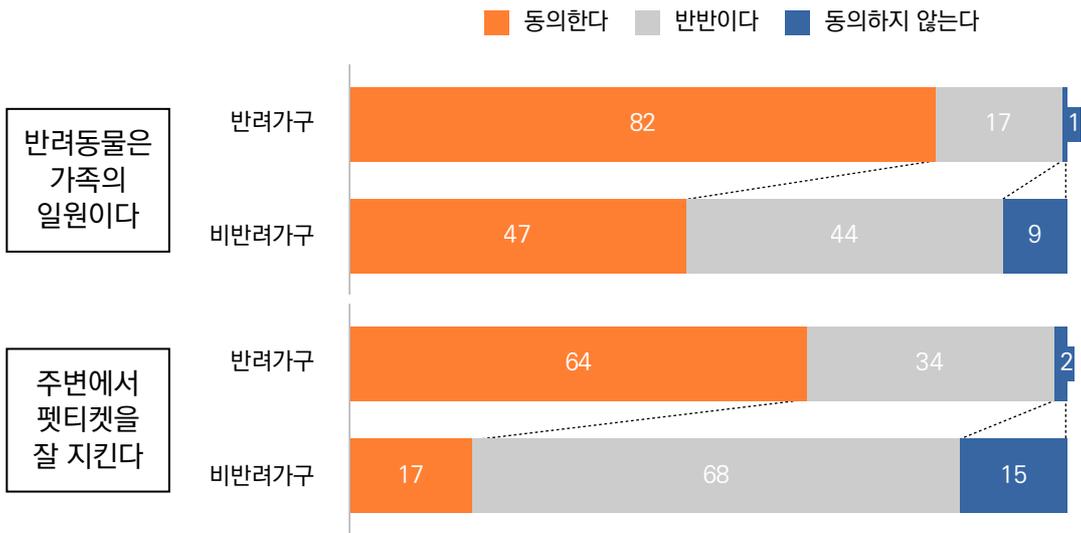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2023.06. (반려동물 양육 중인 전국 20~69세 1,000명, 모바일 조사, 2023.04.28.~05.03.)

04

[반려동물 관련 인식] 반려인 10명 중 8명, '반려동물은 가족이다'!

- ▶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반려 가구와 비반려 가구 인식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먼저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란 진술문에 대해 '반려 가구'는 대부분(82%)이 '그렇다'고 동의한 데 반해, '비반려 가구'는 절반에 못 미치는 47%만 동의했다. 또, '주변에서 펫티켓을 잘 지킨다'에는 '반려 가구' 3가구 중 2가구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비반려 가구의 인식은 달랐는데, 펫티켓 준수에 대한 동의율이 17%에 불과했다.

[그림] 반려동물에 관한 인식 차이 : 반려 가구 vs 비반려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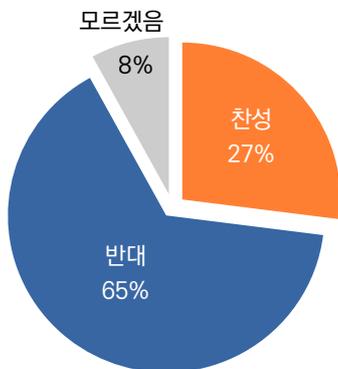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2023.06. (반려동물 양육 중인 전국 20~69세 1,000명, 모바일 조사, 2023.04.28.~05.03.)

◎ 목회자 4명 중 1명 이상, 교회 내 반려동물 공간 마련 '찬성'!

- ▶ 작년 11월초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목회자 구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넘버즈풀에서 '교회에서 성도와 반려동물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별도 공간 마련'에 대한 인식을 물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반대'가 65%로 목회자 3명 중 2명은 교회 내 반려동물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찬성' 의견도 27%로 적지 않았다.

[그림] 교회 내 반려동물 동반 예배 공간 마련 인식 (목회자)



*자료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제65차 넘버즈풀 결과, 2023.11.06.~11.19. (목회자 760명)

**이 조사는 넘버즈 구독자(목회자)를 대상으로 목회데이터연구소 홈페이지 상에서 단순하게 조사한 것으로 교회 규모 등을 고려한 정확한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에 유의할 것

‘애완동물(Pet)’은 인간이 주로 곁에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거움을 위해 사육하는 동물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하지만 애완동물 보유 세대가 급증하고 동물의 생명권이 중요해지면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s)’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반려동물은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록되고 법령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면서, 언론 역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대표 단어가 되었는데 ‘반려동물’을 공식 단어로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반려(伴侶)’는 한자어로 ‘짝 반’과 ‘짝 려’를 써서 ‘인생을 함께하는 자신의 반쪽’이라는 의미로 결혼 상대방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 ‘가축’으로 길러 온 동물이 애정과 즐거움으로 사육하는 ‘애완동물’을 거쳐 인간의 동반자가 된 것은 단순한 단어의 변천사 정도가 아니라 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새롭게 정의된 역사적이고 드라마틱한 변화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4명 중 1명(총 가구의 26%, 전 국민의 24%)은 반려인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9조 원에서 2027년 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업체 수는 2022년 기준 2.2만 개로 4년 전에 비해 64% 증가했다. 저출산 기조와 비교하여 ‘개 유모차’가 아기용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웃지 못할 기사까지 나왔을 정도이다.¹⁾

이처럼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인간과 반려동물의 변화된 관계에 기인한다. 코로나 시기인 2020~2022년에 반려동물 입양이 급증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한 가구의 이유로 ‘외로움과 우울감 극복’이 많았다. 반려인의 대부분(82%)은 반려동물을 ‘소유물’ 정도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양육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함께 여행 가기가 힘들’이 가장 많이 꼽혔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가족’이자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다.

이러한 반려 가구의 성장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교회와 목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 고신총회 내에서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반려동물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청원이 있었다.

반려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동물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과 문화로 인해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예견될 것에 대비해 교회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여기서 말하는 ‘신학적 입장’이란, 반려동물이 예배에 참여 가능한지, 반려동물에게 축복기도가 가능한지, 장례식이 가능한지 등을 신학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요구이다.

실제로 ‘교회’, ‘예배’, ‘반려동물’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반려동물 양육과 신앙적 문제가 상충하는 많은 이슈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정의하고 실천한 의견과 행동에 관해 공감과 비난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한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신학적 입장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교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성도의 고민을 이해하고 목회적 입장에서 상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려 가구 성도는 반려동물에 쏟는 과도한 애착을 경계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비반려가구의 인식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고신총회의 ‘반려동물에 관한 신학적 입장’ 청원건은 2년 동안 기각되었다가 2023년에야 상정되었다. 반려 가구가 증가하고 관련한 성도의 요청이 빈번해짐에 따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된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과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교회는 성경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아 새로운 이슈를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며, 그 과정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정에서 상처받을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위로와 배려이다.

1) 조선일보, ‘개 유모차’가 아기용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렸다 기사 (https://www.chosun.com/economy/market_trend/2023/12/25/G26QCSJB3JFRPJRB3SHUOURPQ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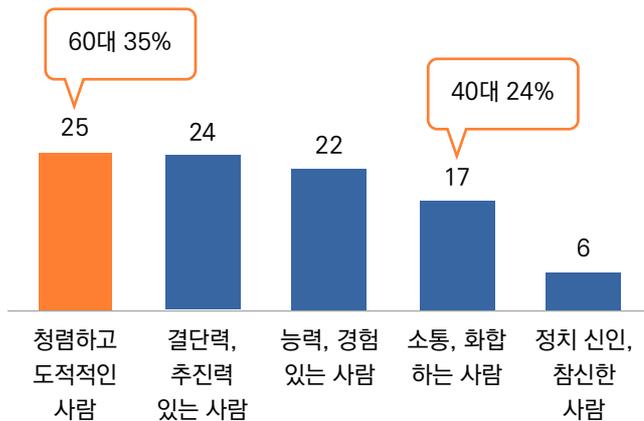
- 1.[한국인의 국회의원 선택 기준]
- 2.[응급실 자해·자살 시도자 실태]
- 3.[폐지 수집 노인 실태]



국회의원 선택 기준, 40대는 '소통', 60대는 '청렴' 더 중요하게 생각!

- ▶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총선이 80여 일 남은 시점에서 국회의원 선택 관련 우리 국민의 인식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한국갤럽)가 발표돼 이를 살펴본다.
- ▶ 국회의원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를 5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묻은 결과, '청렴하고 도덕적인 사람(25%)', '결단력, 추진력있는 사람(24%)', '능력, 경험있는 사람(22%)'이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는 '소통, 화합'을, 60대는 '청렴, 도덕'을 꼽은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그림] 국회의원 선택 시 우선 유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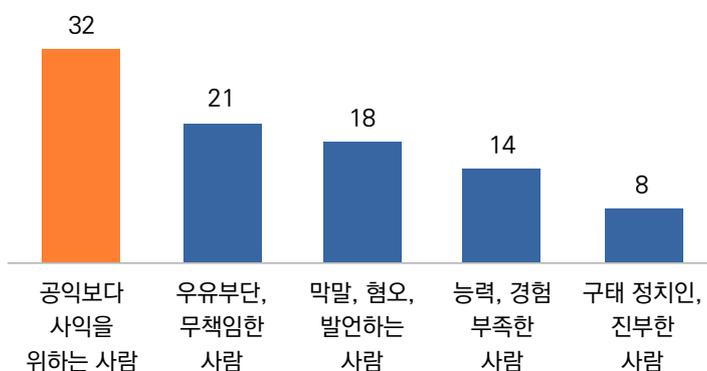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70호(국회의원 선택 기준), 2024.01.12.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전화조사, 2024.01.09.-01.11.)

**기타/모름 응답은 항목에서 제외함

◎ 당선될까 봐 걱정되는 국회의원 유형, '사익 추구형'!

- ▶ 이번에는 당선 시 가장 걱정되는 국회의원 유형에 관해 5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결과를 살펴보니 '공익보다 사익을 위하는 사람'이 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우유부단, 무책임한 사람' 21%, '막말, 혐오 발언하는 사람' 18%, '능력, 경험이 부족한 사람' 14% 등의 순이었다.

[그림] 연령별 국회의원 선택 시 기피 유형** (%)



*자료 출처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70호(국회의원 선택 기준), 2024.01.12.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전화조사, 2024.01.09.-0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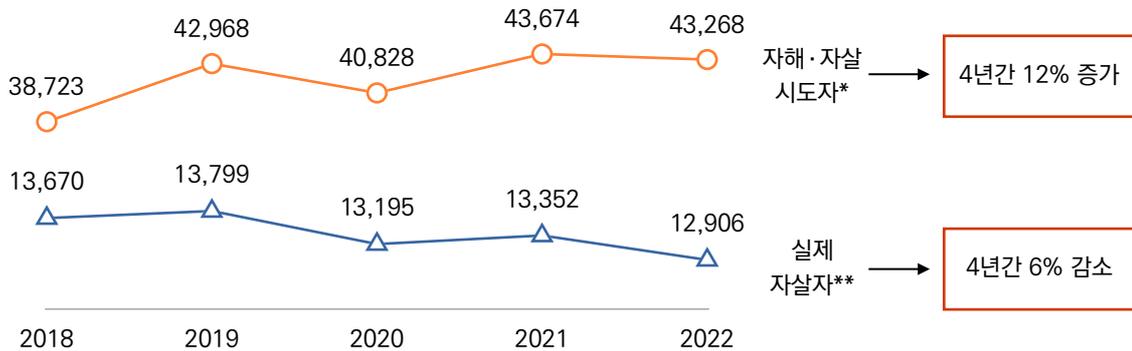
**기타/모름 응답은 항목에서 제외함



자해·자살 시도자, 4년 사이 12% 증가

- ▶ 최근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간한 ‘2021~2022 응급실 자해·자살 시도자 내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극단적 선택 또는 자해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 온 사람은 4만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실제 자살자 수는 약 1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2018년부터 4년 새 추이를 보면 자살자는 지난 4년간 6% 감소했으나, 자해·자살 시도자는 4년 사이 12% 높아지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 전체적으로 2022년 기준 자해·자살시도자가 실제 자살자 대비 3.4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 됐다.

[그림] 연도별 자해·자살 시도자와 자살자 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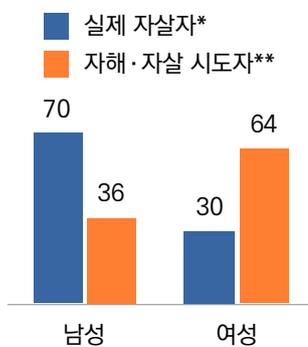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2021~2022 응급실 자해·자살 시도자 내원현황’, 2023.12.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 25.2명, 전년 대비 0.8명(3.2%) 감소’ 보도자료, 2023.0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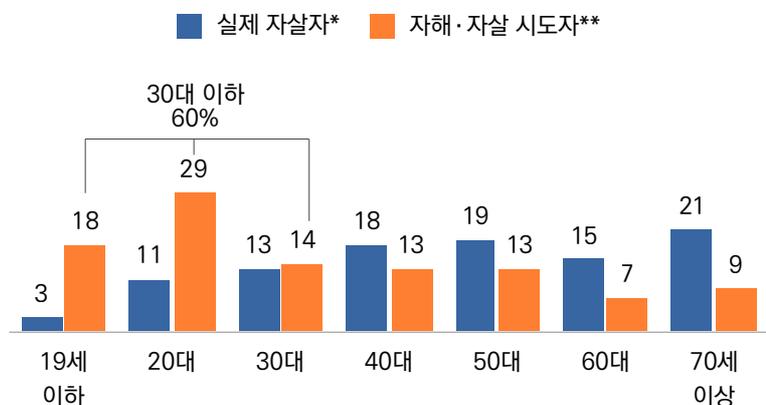
◎ 자해·자살 시도자, ‘여성’과 ‘30대 이하’ 많아!

- ▶ 자해·자살 시도자와 자살자 수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실제 자살로 목숨을 잃는 경우는 남성이 70%로 여성(30%)보다 크게 높았지만, 자해·자살 시도자 비율은 여성이 64%로 남성(3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 ▶ 또한 자해·자살 시도자의 연령대는 20대가 29%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이하 젊은 층의 비율이 60%로 동일 연령대의 실제 자살자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많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림] 성별 자해·자살 시도자와 자살자의 비중 비교 (%)



[그림] 연령별 자해·자살 시도자와 자살자의 비중 비교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통계’, 2023.09.21.

**자료 출처 :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2021~2022 응급실 자해·자살 시도자 내원현황’, 20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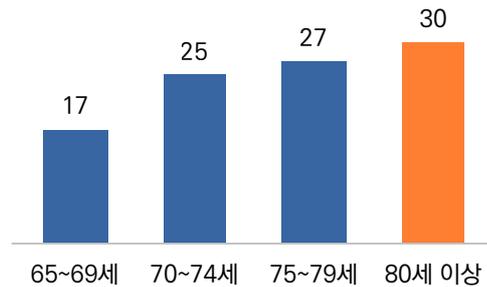
폐지 수집 노인, 일주일에 6일 일하고 월 16만 원 벌어!

- ▶ 길거리에 종종 폐지 줍는 노인을 마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주요 결과를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폐지 수집 노인은 약 4.2만 명에 달했고, 평균 연령은 76세로, '80세 이상'도 10명 중 3명가량이었다.
- ▶ 이들은 하루 평균 5.4시간씩 주 6일 폐지를 주웠고, 월 16만 원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수입을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1,226원에 불과하다.

[그림] 폐지 수집 노인의 특성

- 총 : 4.2만 명
- 평균 나이 : 76세
- 일평균 수집 시간 : 5.4시간
- 일주일 활동 일수 : 6일
- 폐지 수집 월수입 : 16만 원

[그림] 폐지 수집 노인의 연령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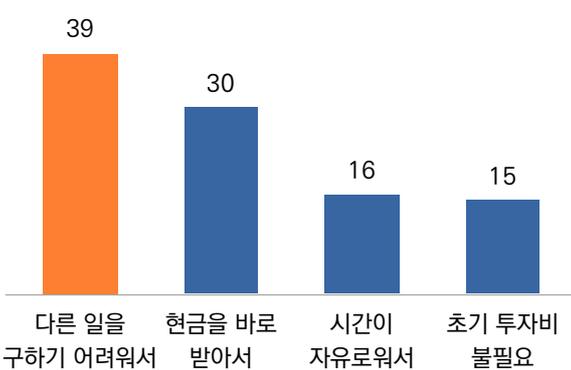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 추진'(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3.12.28.(폐지수집 노인 1,035명 및 전국 폐지 납품 고물상 105개, 1대1 대면 면접조사 및 인터뷰, 2023.06~20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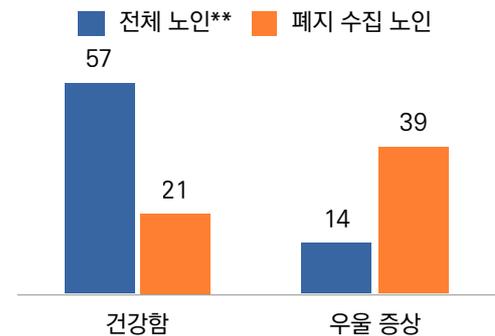
◎ 폐지 수집 노인, 신체적/정신적 건강 모두 전체 노인보다 매우 약해!

- ▶ 폐지 수집을 시작한 주된 동기는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워서'가 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금을 바로 받아서' 30%, '시간이 자유로워서' 16% 등의 순이었다.
- ▶ 한편 폐지 수집 노인의 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과,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1%, '우울 증상이 있다'에는 39%가 응답해 전반적으로 전체 노인 대비 주관적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고, 우울감 또한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폐지 수집 시작한 이유 (%)



[그림] 주관적 건강 상태와 우울감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 추진'(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3.12.28.(폐지수집 노인 1,035명 및 전국 폐지 납품 고물상 105개, 1대1 대면 면접조사 및 인터뷰, 2023.06~2023.12.)

**전체 노인 통계 :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건강 상태는 5점 척도, 우울증상은 단축형 노인우울척도 사용하여 8점 이상을 우울 증상으로 정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71호 \(2024년 1월 3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경제 전망, 부동산 집값 전망, 집 소유 인식 등

[尹정부 '통합' 외치지만... 국민 63% "갈등 더 심각해졌다" \[2023 공공갈등 의식조사\]](#)

한국일보_2024.1.18.

◎ 사회 일반

[전남·전북·경북·충남, 지원금 1위가 출산 1위](#)

국민일보_2024.1.19.

[우리 아이 태어나면 얼마나 받나...0~7세 '현금지원' 2천960만원](#)

연합뉴스_2024.1.22.

["날고 싶어도"... 출산휴가·육아휴직 여건 OECD '최하위'](#)

국민일보_2024.1.22.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조선비즈_2024.1.16.

[작년 입국 탈북민 196명...절반 이상이 2030·엘리트층 10명 안팎](#)

연합뉴스_2024.1.18.

[우울증 및 죽음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4.1.17.

◎ 청년 / 청소년

[학생들 "정치인 못 믿어요"...인플루언서보다 신뢰도 낮아](#)

연합뉴스_2024.1.21.

[고교생 4명 중 1명은 "우리 반 친구들, 수업시간에 자요"](#)

연합뉴스_2024.1.17.

[대입서 가장 중요한 것은...6년만에 '인성'이 '수능' 앞섰다](#)

연합뉴스_2024.1.17.

[올해 경남 25개 초교 신입생 '0명'...합천·고성·의령이 절반](#)

연합뉴스_2024.1.16.

◎ 경제 / 기업

[중소기업 매출총액 2천275조원...고용인원은 763만명](#)

연합뉴스_2024.1.18.

[소상공인 4명 중 3명 "올해 경영 상황 악화할 것"](#)

연합뉴스_2024.1.18.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한국 직장인 행복도 41점...작년 그룹사 1위 네이버"](#)

연합뉴스_2024.1.15.

[떡 돌리기 없애고 콜라 회식...'MZ 공무원 퇴직 막기' 비상령](#)

중앙일보_2024.1.17.

[육아휴직 하면 승진 느려진다, 기업 절반 이상에서](#)

한겨레_2024.1.18.

[취업자 10명 중 1명 "대기업 다녀요"...직원수 1위는 삼성전자 몇 명?](#)

문화일보_2024.1.22.

◎ 세계 / 국제

["비싼 학비·시간 투자했는데"...일자리 못 찾는 美 MBA 졸업생](#)

연합뉴스_2024.1.17.

["일본서 살기 싫다" 짐 싸는 일본인 57만명...62%가 여성, 왜](#)

중앙일보_2024.1.17.

◎ 건강

[골다공증, 오전 10시~오후 2시 사이 하루 10분 '이것' 필수](#)

중앙일보_2024.1.13.

[건강해지려 매일 먹었는데, 오히려 독?... 100% 과일주스의 배신](#)

조선일보_2024.1.17.

◎ 기독교 / 종교

[\[‘신빈곤층’ 부교역자를 살리자, \(국민일보\)\]](#)

[수도권 작은 교회선 사택 꿈도 못꿔... 사례비 최저임금 못 미쳐 <상> 사택 제공 없어요](#) _2024.1.18.

[안식월 제공도 좋지만... 가장 원하는 건 인격적 대우 <하> 최고의 복지는](#) _2024.1.19.

[25년간 4000만명 빠져나간 美 교회, 해법은...](#)

더미션(국민일보)_2024.1.19.

[노년세대가 한국교회 주역된다](#)

기독신문_2024.1.14.

[요즘 '가나안 MZ' SNS 신앙 공동체로 모인다](#)

더미션(국민일보)_2024.1.17.

[청년 '가나안 성도' 늘어... 19~29세 45% 최다](#)

더미션(국민일보)_2024.1.23.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낸캠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연신환기(주),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신규 후원 |

광주무돌교회(담임목사 김민호), 지구촌교회(목동)(담임목사 김형석)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명민, 송예슬,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교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원

|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책 구입 안내 |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기반하여 한국 교회 전망과 전략을 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출간되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신학교 교수, 언론인, 현직 대형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 기독교 문화 전문가, 조사 통계 전문가 등 한국교회를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로 TFT를 구성, 기획하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와 집필을 주관하여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에 이은 두 번째 책입니다.



서적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

| 연구소 소식 |

우리 연구소는 라잇나우미디어(2024.01.22)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간의 유기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각 선교 현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